

# '에비앙의 그녀'...7년 전 감동 다시 한번

박인비, 내일 개막 에비앙 챔피언십 '남다른 각오'

女브리티시오픈까지 2주 연속 메이저 열전  
LPGA 통산 메이저 20승 향한 위대한 도전

여자골프 메이저 대회가 2주 연속 열린다.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410만달러)이 25일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에서 막을 올리고 바로 다음 주인 8월1일부터는 AIG 여자 브리티시오픈(총상금 450만달러)이 영국 잉글랜드 밀턴킨스의 워번 골프클럽에서 올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로 펼쳐진다.

메이저 대회가 2주 연속 열리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다.

올해 에비앙 챔피언십이 2012년 이후 7년 만에 개최 시기를 7월로 앞당기면서 메이저 대회 사이 간격이 좁아졌다.

에비앙 챔피언십이 여름에 열리게 된 것을 반기는 선수는 역시 '골프 여제' 박인비(31)다.

박인비는 이달 초 국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우승했을 때도 여름에 대회가 열렸다"며 "그때 기억을 다시 한번 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인비는 이 대회가 메이저로 승격하기 전인 2012년에 정상에 올랐는데 그때 대회가 올해처럼 7

월 마지막 주에 열렸다. 박인비는 LPGA 투어 통산 19승을 기록 중이라 이번 '메이저 2연전'에서 1승을 보태면 20승을 메이저로 장식하게 된다.

박인비는 "에비앙이 사실 저와 잘 맞는 코스는 아니다"라며 "하지만 그린 등 코스가 조금씩 바뀌면서 어려워지고 변별력이 생겨 난도가 있는 코스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플러스 요소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그는 "산악 지형 코스라 그린에도 잘 안 보이는 잔경사들이 많고 코스가 좁은 특성이 있다"며 "그린에 적응하는 부분과 샷 정확도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자골프는 2017년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대니얼 강(미국) 이후 올해 같은 대회까지 최근 11차례 메이저 대회에서 각각 다른 11명의 우승자가 나올 정도로 혼전 양상이다.

박인비 외에 올해 ANA 인스퍼레이션을 제패한 고진영(24), US 오픈 우승자 이정은(23)에 세계랭킹 1위 박성현(26) 등 한국 선수들이 우승 후보로 주목된다.

또 한국 선수들은 메이저 대회



25일 개막하는 LPGA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메이저 통산 20승에 도전하는 박인비.

가 5개로 늘어난 2013년부터 공고 승, 2016년과 2018년에는 1승에 그쳤다. 올해도 이번 메이저 2연전에서 최소 1승을 더하면 한국 선수들의 메이저 3승이 확보된다.

2013년과 2015년, 2017년에 메이저 3승을 합작한 반면 2014년 2

승, 2016년과 2018년에는 1승에 그쳤다. 올해도 이번 메이저 2연전에서 최소 1승을 더하면 한국 선수들의 메이저 3승이 확보된다.

/연합뉴스



'2019 김홍빈 가셔브롬 I 원정대' 대원들이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홍빈 대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 '희망 전도사' 김홍빈 대장 금의환향

'불굴의 투혼' 세계 11위 고봉 가셔브롬 I 등정 성공

'불굴의 투혼'으로 지난 7일 세계 11위 고봉인 가셔브롬 I 등정에 성공하며 희망을 선사한 김홍빈 대장이 23일 금의환향했다.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 산악인' 김홍빈 대장은 이번 등정 성공으로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중 13좌 정상에 올랐다.

김 대장이 내년에 브로드피크(8천47m) 등정에 성공하면 14좌 완등이라는 목표를 이루게 된다.

김 대장은 20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등정에 성공하면서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내 수영대회 흥행에 힘을 보탤다.

김 대장은 귀국 인사를 통해서 "광주시민의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가셔브롬 I에 오를 수 있었다"며 "중반을 지나고 있는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 광주시청 전대운, 실업역도 '金바벨'

용상 1위 인상·합계 각각 3위...광주시청 역도팀 '금1·동9'

광주시청 역도팀 전대운(27·사진)이 2019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전대운은 23일 강원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109kg급에 출전해 인상 177kg 3위, 용상 222kg 1위, 합계 399kg로 3위에 올랐다.

전대운은 인상 1차 시기에서 170kg을 들어 올린 뒤 2차 시기에서 177kg에 성공했다. 이어 3차 시기에서 183kg에 도전했다가 아쉽게 실패했다.

용상에서는 1차 시기에서 211kg, 2차 시기에서 222kg에 성공했다. 이미 1위를 확정지은 전대운은 3차 시기는 도전하지 않았다.

광주시청은 금메달 1개와 동메달 9개로 이번 대회를 마감했다.

남자 일반부에서 96kg급 정승우(23)가 동메달 3개(인상 142kg, 용상 187kg, 합계 329kg)를 획득한 가운데 81kg급 손현호(19)가 동메달 2개를 차지했다. 여자일반부에서는 71kg급에서는 김희수가 동메달 2개를 추가하는 선전을 펼쳤다. /박희중 기자

가운데 81kg급 손현호(19)가 동메달 2개를 차지했다. 여자일반부에서는 71kg급에서는 김희수가 동메달 2개를 추가하는 선전을 펼쳤다. /박희중 기자

## 발렌시아 "이강인 이적 불가"

스페인 언론 보도...임대 또는 잔류 후 주전경쟁 선택 가능성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에서 뛰는 이강인(18)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소속 구단이 완전 이적을 원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지인 데포르테 발렌시아 노는 23일 "발렌시아가 이강인(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확정된 건 이적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준우승을 이끌고 골든볼을 차지한 이강인은 앞서 "발렌시아를 떠나고 싶다"며 이적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현지 보도를 통해 나왔다.

1군 무대에 데뷔했지만 많은 출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약스와 에인트호번(이상 네덜란드), 레반테, 에스파뇰, 그라나다, 오사

수나(이상 스페인) 등이 이강인 영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데포르테 발렌시아는 "구단은 이강인의 미래를 두고 보상을 통해 재영입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완전히 이적시키는 방안에는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구단은 이강인을 임대 또는 잔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대했을 때는 이강인의 출장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잔류 때는 주전 경쟁을 통해 꾸준한 경기 출장이 따라줘야 한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강인은 현재 소속팀의 프리시즌 일정에는 참여하고 있다.

이강인은 21일 스위스 랑에서 열린 AS모나코(프랑스)와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서 45분을 뛰었다. /연합뉴스

## 장성 문향고 김미수, 대통령기 2관왕

장보고기 이어 2개대회 연속 2관왕  
'조정 메카' 장성, 총 11개 메달 획득

장성 문향고 조정팀 김미수(1년)가 제35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김미수는 지난 22일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경량급 싱글스킬에서 8분30초17의 기록으로 팀 동료 김보민(2년, 8분34초92)에 4초 앞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미수는 김보민과 호흡을 맞춰 출전한 여고부 더블스킬에서 팀 동료 조현서(3년)와 김하경(2년)이 팀을 이룬 '언니 팀'을 제치고 2관왕을 달성했다.

지난달 장보고기 조정대회에서 출전 선수 4명 모두 2관왕을 달성하며 팀을 7년 만에 종합우승으로 이끈

문향고 조정팀은 싱글스킬에서도 김하경과 조현서가 각각 2위와 3위에 오르며 이번 대회에서도 모든 선수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합작했다.

장성 문향고 조정팀 김지은 지도자는 "출전 선수들 모두 입상해 지도자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제100회 전국체전에서도 전국 최강의 명성에 걸 맞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선수들과 함께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고부 경량급 더블스킬에 출전한 장성하이텍고의 최정인·김민겸(이상 3년)도 7분14초2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정인은 경량급 싱글스킬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여중부 경량급 싱글스킬 최수진(장성군청)과, 여중부 싱글스킬 김은혜(장성여중 3년)가



왼쪽부터 박영배 감독, 오기삼 교사, 김보민, 김미수, 고광진 문향고교장. /전남도체육회 제공

각각 은메달을, 남중부 박지성(장성중 2년)이 싱글스킬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출전한 장성 연고 팀들은 금메달 3개를 비롯해 총 11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성과를 거두며 '조정 메카'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박희중 기자

## 김경문호, 공식 출범...도교行 시동

## 야구대표팀 예비 엔트리 90명 발표

10월 초 28명 최종 확정

도쿄올림픽 본선 출전권이 걸린 프리미어12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본격 출범했다.

KBO 사무국은 23일 김경문 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승선하는 예비엔트리 90명을 발표했다.

11월 열리는 프리미어12를 주관하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의 방침과 별도로 KBO 사무국과 KBO 기술위원회가 자체로 정한 엔트리로, 태극마크를 달 선수들에게 미리 준비를 잘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김시진 KBO 기술위원장과 최원호, 이종열, 박재홍, 마해영, 김진섭 기술위원은 22일 회의에서 9월 WBSC에 제출해야 하는 1차 엔트리(45명)의 2배인 90명을 선발했다.

개인 일정 차 해외에 나간 이승업 위원은 사전에 의견을 기술위원회에 전달했다.

투수 43명, 포수 6명, 1루수 6명, 2루수 5명, 3루수 5명, 유격수 6명, 외야수 19명 등으로 올 시즌 성적과 국제대회 경험, 젊은 선수들에 대한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 뽑았다고 KBO 사무국은 설명했다.

양현종(KIA 타이거즈)과 김광현(SK 와이번스) 등 한국 대표 원수 투수 2명을 필두로 KBO리그 간판선수들이 망라됐다.

특히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최지만 양현종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뛰는 최지만(28)도 포함됐다. 최지만은 김경문 대표팀 감독에게 프리미어12 출전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추어 선수는 한 명도 뽑히지 못했다.

김경문 감독과 김광호 대표팀 전력분석총괄코치, 이종열 코치와 전력분석팀은 27일부터 팬아메리카 대회가 열리는 페루 리마로 출국해 프리미어12 서울 라운드에서 조별리그를 치르는 쿠바, 캐나다를 비롯해 다른 중남미 국가의 전력을 탐색한다.

프리미어 12 최종 엔트리 28명은 10월 3일에 발표된다.

한국은 프리미어 12에서 대만, 호주보다 나은 성적을 올려 6강 슈퍼라운드 진출하면 아시아-오세아니아 대표 자격으로 도쿄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확보한다. /연합뉴스